

2011 Southeast Asia Seminar 참관기

엄 은 희*

필자는 2011년 11월 22일에서 27일까지 태국의 북쪽 국경도시 치앙라이 주의 매싸이(Mae Sai, Chiang Rai)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교토대 동남아연구소(CSEAS,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가 동남아시아의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로, 197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5회째에 달하는 전통있는 세미나라고 한다.

올해의 프로그램은 태국에서 열리는 만큼 교토대 동남아연구소와 태국의 쾰라롱껀대학교 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Asian Studies)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주최 측에서는 참가자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21명의 젊은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에서는 필자 외에 연세대학교에서 GMS 프로젝트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마친 최진명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회원이 참가하였다.) 초청대상은 젊은 학자들이었지만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자들이었고 개중엔 이미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사급 교수들도 대여섯 명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의 국적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대학원생 및 학자들이 다수였지만, 일본과 호주에서 공부 중인 3명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조교수

의 서구 출신 대학원생들도 함께하였다. 21명의 참가자 외에도 CSEAS와 쭈라롱껀대학교의 교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총인원은 40여명에 달했으며, 참가자들은 총 4일간의 세미나와 이틀간의 현장답사를 포함하여 총 6일간 뜨겁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었다.



<사진 1> 참가자 단체사진

올해의 프로그램이 매싸이라는 국경도시를 개최장소로 채택한 것은 바로 본 세미나의 주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본 세미나의 타이틀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간 경관의 변형(Transformations of the Human Landscape in Southeast Asia)”이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메콩강의 상류지역(the upper Mekong sub-region)인 중국과 동부 미얀마, 북부 태국, 라오스 등지의 이슈로 한정되었다. 태국북부의 국경 도시 매싸이는 북쪽으로는 미얀마의 타찌렉(Thakhilek)과 국경시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얀마-태국-라오스의 국경이면서 동시에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는 메콩강 황금삼각지대(golden triangle)의 관문인 치앙쿱(Chiang Khong)이나 치앙썸(Chiang Sen)과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본토 동남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 북쪽 방향으로 1시간 정도 다시 국내선을 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초국적 이슈들을 다루려는 세미나의 주제를 생각하면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고 여겨진다.

티벳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의 윈난성을 거쳐 동남아시아의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하는 초국적 하천 메콩강은 그야말로 인도차이나의 젓줄이라는 수식어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지역의 인구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매우 대단하다. 메콩강은 근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영토의 끝단인 변방이자 타국과 자국을 구분하는 자연적인 국경선이다. 메콩강을 따라 주권과 영토가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국가가 아닌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메콩강은 수많은 지역민들이 생계를 의존하고 빈번한 교류와 상호작용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공동의 생계의 원천이자 이동의 통로이자 매개체였다. 하지만 1991년 캄보디아 내전의 종전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메콩유역 경제협력 프로그램인 “GMS 프로그램(Great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을 통한 경제통합의 흐름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세계 경제의 중핵이 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이 지역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근원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축은 실제로 지구-지역(region)-국가-로컬로 층화될 수 있는 개별 혹은 복수의 스케일을 아우르는 다중 스케일적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메콩강에서 기원하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성장잠재력은 이 지역을 국제 개발의

초점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 지역의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삶 역시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세미나의 주제인 인간 경관(human landscape)의 변형이란 주제가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미나를 기획한 교토대 CSEAS는 본 세미나를 통해 메콩강을 둘러싼 역사적이며 동시대적인 인간(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이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생태적 변화들의 원인과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 하에, 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대 주제 하에 4일에 걸쳐 총 12개의 강의가 제공되었고 참가자들은 매일 구성원을 바꿔가며 4개의 팀을 구성하여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는 진행되었다.(운영의 형식은 한국동남아연구소가 주관하는 Advanced Seminar와 동일하다.)

세미나의 첫날은 쭈라롱껀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소장이자 역사학자인 쉐넛(Sunait Chutintaranond) 교수가 “메콩 하류 지역에 대한 역사적 개관”라는 주제로 이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해제를 제공하였다. 본격적인 주제별 강의와 토론은 둘째 날부터 3일 간 펼쳐졌는데, 주제와 강연을 중심으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인프라구조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토지이용 변화”로 네 개의 강의를 제공되었다. 각각은 ‘메콩지역 물류경관의 변화’(Somphong Sirisophonin 교수, 쭈라롱껀대), ‘메콩강의 수자원과 댐 건설의 사회환경적 영향’(Kate Lazarus 활동가, M-Power), ‘국경지역의 토지이용변화’(Yasuyuki Kono 교수, 교토대 CSEAS), ‘메콩유역의 농업활동 변화’(Attachai Jintrawet 교수, 치앙마이대)이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간의 이동과 정주”로 세 개의 강의를 제공되었다.

각각은 ‘동남아시아에서 인간 정주의 경관화’(James Chamberlain, 프리랜서 컨설턴트), ‘종족 다양성의 공간적 재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Nathan Badenoch, 교토대 CSEAS),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의 국경사회시스템’(Yoko Hayami, 교토대 CSEAS)였다.

세 번째 주제는 “중국 부상의 정치경제학과 자원 관리의 변화”로 총 네 개의 강의를 제공되었다. 각각은 ‘중국의 메콩진출의 경제, 문화적 함의’(Nguyen Van Chinh, 하노이대), ‘GMS 프로젝트의 국제 정치경제학적 해석’(Ukrist Pathmanand, 쭤라롱껀대), ‘라오스의 자원개발을 둘러싼 경합’(Simon Creak, 교토대 CSEAS), ‘GMS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해’(Visara Kraiwatanapong)로 구성되어있었다.

총 4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루어진 주제는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그 깊이와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매 순간 순간이 새로운 자극의 기회로 다가왔다. 본 세미나 기간 동안 필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지점은 국가 중심주의를 넘어서 주제별 혹은 초국적 지역을 궁구(窮究)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자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세미나의 구성이 이를 조건 없이 다국적 학문 후속세대에게 전달하고 함께 토론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필자는 본 세미나가 두 가지 지점에서 ‘국가 중심주의’를 넘어서려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지점은 강연과 토론의 주제가 일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혹은 초국적) 이슈나 관계에 대한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메콩강을 세미나의 주요 이슈로 선택한 이상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 메콩강 자체가 초국적 하천이며 메콩강이 제공하는 자원과 토지이용을 둘러싼 경합과 갈등들은 매우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초국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남아 연구자들이라면 누구나 동남아시아라는 공간의 특성은 개방성과 혼종성/복합성에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동남아연구 그룹 내에서는 여전히 국가별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동시에 존

재한다.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일국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혹은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초국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동남아 ‘연구의 현황’은 여전히 하나의 구획된 단위로서의 지역(local)과 개별국가들(과 좀 더 나가면 개별국가와 (신)식민지 모국과의 관계 혹은 한국과의 관계)에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국가 중심주의의 뒷에 우리가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현장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연구접근도 국가나 특정 지역(local)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탈(脫) 국가주의’의 지점은 세미나 참가자들의 구성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실상 동남아연구자들이 진행하는 국제 세미나는 모두에게 제2외국어인 영어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미나가 막바지에 이르면, 불편한 언어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출신국가별로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소그룹 내에서는 그 소그룹만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동남아연구소의 advanced seminar에서 한국참가자들끼리의 그룹화 경향이 종종 발견된다는 평가를 들은 바 있다.) 이럴 때는 다수를 점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구분되고, 소통은 어느 순간 단절되고 만다. 그런 점을 방지하려는 듯 이번 세미나의 구성은 일본인을 포함하여 국적별 참가자의 수를 1~2인으로 만들어 그야말로 초국적 참가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자 구성원들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그룹으로 침잠하지 않고 끝까지 상호 간에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해야만 했고, 또 그 과정 안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획득하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교토대 CSEAS의 동남아시아 세미나는 일본의 젊은 동남아연구자들이나 타국의 젊은 동남아연구

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깊이있는 학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탈 국가적’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일본의 경우엔 동남아시아 연구의 역사와 전통이 길고 동원 가능한 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의 역사와 현재적 환경은 여전히 짧고 척박하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다. 일본의 동남아연구의 현재는 우리에게 여전히 먼 미래라는 평가도 인정한다. 그러함에도 연구현장의 현재적 상황에 주목하여 역동적인 변화를 주목하려는 다수의 연구자들의 모습과 다국적 후속세대들을 대상으로 상호 학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세미나의 취지와 실제 진행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많은 자극이 되었다. 향후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자 그룹 내에서는 개별 국가로 환원되지 않은 주제별 접근을 위한 개인 및 공동연구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이 확대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자 및 지역전문가들과 접근해 보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리라는 다짐으로 짧은 참관기를 마무리하겠다.